

# Why Are Rich, White Girls Struggling in Math? 요약 및 논평

20170780 조용주

## Summary

글은 지리적 환경이 어떻게 학교 내 성불평등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역별 얼마나 부유한 지역인지, 어떤 인종으로 구성된 커뮤니티가 존재하는지, 수입을 벌여오는 성별이 남성인지 등에 따른 차이가 성불평등을 낳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예시로, 남성이 주로 수입을 벌여오는 부유한 백인 커뮤니티의 경우 여학생들의 수학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수학은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주입됨에 따라 여학생들의 수학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실제로 과학 관련 전시회에 가족이 다녀왔을 경우 부모는 여성 자녀가 아닌 남성 자녀에게 과학 관련 이야기를 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백인, 부유층, 남성 주수입 특성이 지배적인 지역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수학 과목에서 약 40% 낮은 성적을 보이는 결과를 낳는다.

반면, 가난한 유색인종 커뮤니티의 경우 남학생의 학업 성취도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해당 커뮤니티는 마초적 남성성 규범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남학생들이 학업을 경시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단순 읽기 과목 뿐 아니라 수학 과목에서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약 20% 더 높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정리하자면, 백인 부유층 지역의 경우 남성 아이들에게 수학 과학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차별적 인식으로 여학생들의 수학 과학 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유색인종 빈곤 지역의 경우 마초적 남성성 규범이 남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접근성을 방해해 남학생 성적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 Opinions

### 1. 여성 차별과 계급/인종 차별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전자의 경우 여학생들이 피해를, 후자의 경우 남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그러나 피해를 야기한 차별의 성격은 꽤나 다르다.

전자의 경우 여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차별은 여성 차별이다. 그 기저에는 백인 부유층 남성들의 가부장적 남성성이 존재한다. 이는 수학, 과학적 분야에서 돈을 버는 것은 남성이라는 차별적 통념을 낳아 여성은 '공감적 동물'이라며 읽기 과목에 그 능력을 한정하는 사회의 분위기와 함께 여학생들의 수학, 과학 성적의 성취를 제한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 남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차별은 계급 및 인종 차별이다. '맨박스로 대표되는 남성성 규범에 따른 피해인데 왜 계급, 인종 차별인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말 그대로 계급과 인종에 따른 맨박스의 비교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맨박스 자체의 생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여성이 아닌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은 차치하고, 계급 및 인종에 따른 맨박스의

양상을 살펴보자.

글에서 언급되었듯, 유색인종 빈곤층 남성들에게 부여되는 맨박스는 마초적 맨박스이다. 마초적 맨박스가 지배적인 남성 집단 내에선 '여성'스러운, '게이'스러운 행위는 하지 않고 물리적 힘에 따른 과시가 추앙받는다. 이는 자연스레 학업, 문화 등 상위 계급으로 이동 가능한 수단들에 대한 경시로 이어지며 해당 남성들의 빈곤 고착화에 기여한다. 반면, 백인 부유층 남성들에게 부여되는 맨박스는 가부장적 맨박스에 가깝다. 가부장적 맨박스는 가정 생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을 핑계로 가정 내 남성의 발화권을 절대화하며 사회, 경제 내 여성 진출을 막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맨박스 자체가 부유층 백인 남성들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기보다는 그들의 특권에 대한 배타성, 폐쇄성을 강화하는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후자의 경우는 요즘 한국 남성들이 주장하는 '역차별'적 현상이 아닌, 계급 및 인종적 차별에 의해 야기되는 현상이라 분석 가능하다.

## 2. '백인 부유층 남성 계층'에서 탈락한 백인 빈곤층 남성들의 인셀화

유색인종 빈곤층 남성들이 마초적 맨박스가 제시하는 남성성 규범에 따라 계급 이동성을 잃어가는 동안, 백인 부유층 남성들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프레임으로 대표되는 마초적 맨박스를 도구로 경제적 지배권 혹은 독점권을 확장 및 유지해간다. 즉 백인 부유층 남성들은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남성성 규범 및 의무를 남성 전반에 부여함을 대가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한함과 동시에, 경제적 우월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남성성 규범을 수행할 수 있는 이들이 소수라는 점이다. 백인 빈곤층 남성들은 백인 부유층 남성들이 남성 전반에 부여한 남성성 규범을 수행할 능력은 없으나 해당 남성성 규범에 의해 비대화된 남성 지배성을 놓지 못한다. 이에 따른 결과가 소위 '인셀'이라 불리는 집단의 탄생이다. 이들의 특이점은, 자신의 계급 혹은 능력으로 수행 불가능한 남성성 규범을 부여한, 혹은 수행 능력 및 자원을 독차지한 상위 계급 남성이 아닌 자신이 '소유'할 수 있었던 대상으로 기대한 여성으로 그 방향이 뒤틀린다는 데에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같은 '인셀'적 특성이 현재 한국 사회 2030 남성들이 부르짖는 안티 페미니즘 정서와 무섭도록 닮아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내 '인셀'과 한국 청년 남성들의 차이점은 집단 정서 형성 과정에 있다. 미국 내 인셀의 경우, 계급 이동성 감소에 따른 계급 갈등 구도가 집단 정서에 기여하였다면, 한국 청년 남성들의 경우 세대 갈등 구도가 집단 정서 형성 전면에 등장한다. 이러한 특성은, 계급에 관계없이 남성 우월성을 내세운 한국 유교 및 가부장제의 폐해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